

# 시민 시정 이해력 향상, 한발 앞선 소통행정 구현

**정**읍시가 소통 강화를 통한 책임행정 실현과 시정 동력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언론인 정례 브리핑을 지난달부터 재개했다. 시는 부서별 현안과 각종 사업 추진상황, 시민에게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 등을 비대면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시정 주요 현안과 각종 시책 등의 추진 과정을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물론 시정 방향과 정책의 정확한 전달과 함께 한발 앞서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첫 브리핑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 방향 등 제시

첫 번째 브리핑은 지난달 28일 문화행정국의 소관 업무로 진행됐다. 문화행정국은 "지속 가능한 정읍의 미래 성장 비전과 실현 전략을 마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읍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주요 소관 업무를 자료로 제출했다.

브리핑자료에는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 건립 ▲정촌가요특구 활성화 사업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민자유치 ▲신태인읍 행정문화센터 건립 등 9개 주제에 대해 주요 현안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이 상세히 나열돼 있다.

정촌가요특구 농악 공연



는 사업이다. 시는 활용성이 높고 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관광 자원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관계자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설계를 확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월 중 설계용역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다.

## ▲정읍시의 향기를 품은 정촌가요특구 활성화에 온 행정력 매진

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가요 '정읍사'를 테마로 조성할 '정촌가요특구'를 차세대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4년여에 걸쳐 총사업비 53억원(도비 26억 시비 27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단계별로는 수제천 등 음악 관련 기증 물품을 받아 음악(소리)에 대한 전시 콘텐츠를 보강하고 야외 어린이 음악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음악분수와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가요전시관의 콘텐츠를 보강해 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티투어와 사생대회 등 교육 체험프로그램과 시립농악단 연회공연, 지역예술인 버스킹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예정이며, 8월 채용 예정인 학예연구사를 통해 전문적인 전시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외부 건물인 한식 체험관과 만석꾼 가옥, 주막(3동), 정읍사 여인 집을 한식당과 전통찻집 등으로 임대 운영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협력의 편의 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 ▲정읍 관광 콘텐츠 구축의 출발, 내장산리



무형문화재 복합전수 교육

**코로나19로 인해 중단 브리핑 지난달부터 재개**

시 문화행정국 첫 브리핑 통합 문화이용권 추진 무형문화재 교육관 건립 지적재조사 등 발표

## 조트 관광지 100% 분양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추진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가 지난해 말 JB금융그룹에 잔여 부지(3만2,779㎡)를 매각해 111만㎡ 부지 100% 분양을 완료하고 험과 즐거움이 어우러진 휴식·치유·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장산리조트에는 JB금융그룹의 통합연수원을 비롯해 (주)내장산리조트리조트의 특급 관광호텔과 풀빌라가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주)엘리스테이 풀빌라리조트는 지난해 9월 준공해 현재 상행리에 운영 중이다.

한국관광공사는 향후 관광지 내 시설의 성공적인 건축과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와 협의를 거쳐 관광지 내 공공시설과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정읍시로 무상귀속하고, 올해부터 모든 관광지 관리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시는 관광지 내 모든 관리권을 이관받음에 따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와 조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을 집중할 계획이다.

## ▲신태인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으로 공동체 문화 확산

신태인읍사무소가 행정·문화·복지기능을 고루 갖춘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시는 신태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현 읍사무소 부지에 사업비 60억5,000만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2,068㎡ 규모로 행정문화복합센터를 신축한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이 자리 잡는다. 또, 2층에는 주민건강을 위한 헬스장과 샤워실, 주민 소통·나눔 공간인 문화 카페가 들어서고 3층에는 문화복지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강당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센터 신축으로 기능이 분리된 시설들을 복합화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정읍시 북부권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시설로 자리매김해 주민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여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지적재조사 업무평가 최우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바른 땅 만들기·시민 재산권 보호... 지적재조사사업 '착착'

'바른 땅' 만들기 사업인 지적재조사(디지털 지적 구축) 사업도 착착 진행된다.

이 사업은 토지 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현실 경계를 반영해 지적도면을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국비 9억원을 투입해 수성2·4지구(KT정읍지사~정읍세무서), 장평지구(정읍여중~정읍시보호회관), 금봉1·2·3지구(금북마을~행정마을) 3,980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토지 경계를 바로잡음으로써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경제도시, 정읍로온 김제

saemangeum

더 나은 미래를 향한

## 새만금중심도시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